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민 성 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일상을 표현한 드로잉과 부조에  
관한 연구

-본인 작품의 동화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주 아 름

일상을 표현한 드로잉과 부조에  
관한 연구

- 본인 작품의 동화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

민성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주 아 름

# 인 준 서

주아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작가에게 예술은 어떤 의미로 함께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 예술작품은 작가의 삶이 바탕 되며 그 가운데 형성되는 작가의 생각과 가치관을 반영하여 소통하는 표현의 장이라 볼 수 있다.

본인의 작품은 생활에서 직접 접하는 물건과 주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써 일상의 풍경을 바탕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통해 본인의 내적심상을 돌아보며 시각적으로 정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모든 관계에 대한 의미와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개인적인 고민과 외로움 등 지극히 소소한 일상과 그 가운데 형성되는 여러 관계의 의미를 본인의 캐릭터를 만들어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인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드로잉과 나무 조각으로 전체적인 이미지를 동화와 같은 이야기형식으로 표현했다. 이러한 작품연구에 관한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이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인의 작품에 대한 연구목적,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제2장 본론에서는 일상의 풍경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돌아보며 소박함 속에 미처 알지 못했던 관계의 소중함을 짚어 보았다. 그리고 본인의 캐릭터를 만들어 이야기형식으로 표현한 작품의 형성 배경과 형태를 의미화하였다. 또한 이를 표현한 부조형식의 나무 조각과 드로잉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였고, 제작과정과 작품설명에 대해 각각 기술하였다.

제3장 결론에서는 드로잉과 부조의 조형적 표현작업을 정리하고 앞으로 진행할 방향에 관해 기술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3
1. 작품의 형성배경	
1) 일상의 풍경과 관계의 의미 .....	3
2. 작품 표현방법	
1) 나무재료와 부조표현 .....	7
2) 동화적인 드로잉의 특징 .....	9
III. 작품분석 .....	13
IV. 결론 .....	32

## 참고문헌

## ABSTRACT

## I. 서론

경제적 가치가 일상을 지배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보여 지는 것과 물질에 치우쳐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을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가치 혼란시대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근래에 들어 삶의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는 바람이 불고 있고 이런 때에 예술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는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환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본인은 이러한 생각을 기점으로 우선 만물을 창조한 조물주와 자연,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 가족, 친구 등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가운데 함께 존재하며 소통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현실 가운데서 겪는 본인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극복하고 해소하게 된 경험을 표현하게 되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본인의 캐릭터를 만들어 동화적인 이미지의 드로잉과 나무를 부조형식으로 제작하였고, 이런 두 가지 형식을 병치시킴으로써 조형화하여 설명했다. 특히 드로잉은 조각에 비하여 무한한 표현력과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래서 얇은 나무판 혹은 종이에 드로잉을 함으로써 부드러운 표현의 장을 펼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관계의 소중함을 되짚어 보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이야기를 조형적으로 정리 분석함에 연구목적을 둔다. 연구 방법으로는 작품의 형성배경인 일상의 풍경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사물과 사람들을 그리며 본인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관계의 소중함과 의미를 서술하였고 나무 조각과 캐릭터를 반영

한 드로잉을 통해 동화적인 표현을 선택한 동기와 그 방법을 논하여 보고자 한다.

## II. 본 론

### 1. 작품의 배경

작품을 만드는 작가로써 여러 가지 모순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복잡한 사회 안에서 본인의 작업은 어떤 의도를 갖고 표현해야 할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우선은 가깝게 볼 수 있는 일상과 그 속에서 본인과 함께 존재하고 있는 사물과 사람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돌아보며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인이 너무나 쉽게 놓치고 간과해 버린 당연하면서도 소중한 관심과 이해, 사랑과 보살핌이 있었음을 깨달았고 작품으로 표현하게 됐다. 이렇듯 본인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표현된 것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과 작품을 투영하여 공감하기도 하고 이해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물질만능과 끝없는 욕망으로 얼룩진 현실 가운데서 상실감과 외로움으로 지쳐가는 현대인들에게 일상의 풍경과 소소함 가운데 함께하는 이들의 관계를 밝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제시된 동화와 같이 따뜻한 이야기를 통하여 위로와 격려로 다가가고자 하였다.

#### 1) 일상의 풍경과 관계의 의미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본인은 일상을 식상적인 시선이 아닌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고자 하였다. 그러한 일상의 풍경을 통해 본인이 속한 환경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일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찰해 보며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일상의 풍경과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 등 익숙한 것 【작품7】 , 즉 일상의 평범함을 새롭고 창조적인 시각을 드로잉으로 표현하였는데 가족, 친구, 강아지, 나무, 꽃, 책상, 뜨개질, 등 자연물과 동·식물, 정물이든 인물이든 이를 소재로 제작한 작품 하나하나에는 사랑과 보살핌에 대한 따뜻함과 서로 돕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는 공동체 등 여러 관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한 개인적인 일상과 관계가운데서 느끼는 고립과 외로움, 상처 등 본인의 독백의 부분도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독백적인 표현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가운데 보편적으로 접하고 경험하는 것이며, 함께 하고 있는 정물을 표현한 일상의 풍경 또한 관람자들로 하여금 제작자의 생각과 의도를 자신의 삶의 모습과 풍경에 빗대어 쉽게 이해하고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예술이란 것은 예술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해 본다. 예술을 일상과 분리시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평생 농사를 짓다 가는 사람들이나 증권 투자로 살다가는 사람들 모두의 일상 속에는 예술이랄 수 있는 신나는 경험들이 존재하고 있다.<sup>1)</sup>

여기서 본인은 하나의 예 【작품5】 를 들어 일상의 소재를 작품화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작품은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컵을 보면서 차(茶)를 생각하기도 하고 차를 마시면서 떠올랐던 단상, 나뭇잎, 컵의 디자인을 통한 시각적인 즐거움, 또 바쁜 시간 가운데 잠깐의 쉼을 갖았던 여유 등 본인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느꼈던 경험과 생각을 드로잉한 것이다. 그리고 낱장의 여러 가지 드로잉을 부조의 덩어리로 엮어 하나

---

<sup>1)</sup> 정순복, 『일상의 미학』, 예전사, p.45

의 컵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작품은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에 치우쳐 삶을 무미건조하게 바라보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비록 일상 속에서 함께 하는 미물일지라도 그것에 얽힌 사연과 추억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관람자들이 저마다의 일상을 돌아보며 추억하는 계기를 갖고 잠시나마 마음에 여유를 갖고 쉼을 얻는 전환점이 되길 바랐다.

또 작품에서 표현된 본인의 독백은 날개의 드로잉【작품7】중에서 볼 수 있다. 사랑에 설레었던 기억, 보이지 않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 회오리와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손, 또 본인의 욕심과 외로움, 헛된 욕망을 마음에서 꺼내놓는 모습 등 삶에서 느꼈던 감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작품으로 표현된 모습을 통해 본인과 주위 사람들을 투영하기도 하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됨으로써 반성하기도 하고 내면을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여러 가지 공동체에 소속되고 그 공동체의 양육 방식과 교육체계를 통해 타인과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중요한 가치관으로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후천적 학습을 통해 인간은 삶에 있어서 타인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며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함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내면화 한다. 따라서 인간은 고립과 소외를 두려워하고 집단으로부터의 배척과 축출을 무서워 한다. 뿐만 아니라 집단에 대한 안정된 소속감과 타인의 애정을 추구하는 사회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sup>2)</sup>

이처럼 인간은 관계를 중요시하며 모든 삶 또한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그러나 본 작품에서 본인의 일부 독백이 표현된 드로잉【작품7】에는

---

<sup>2)</sup> 권석만, 『인간관계 심리학』, 학지사, p.27

앞에서 언급한 관계의 밝고 긍정적인 시선이 형성되기 이전에 모든 관계라는 것에서 형성되어질 갈등에 대한 두려움 막연함과 망설임과 그로인해 스스로를 고립시켜 외로움을 느끼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그렇지만 관계란 것에는 필연적으로 갈등과 다툼이 존재하고 그럼으로써 증오와 소외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며 아껴주는 것에 힘쓸 때 만족과 행복의 원천이 만들어지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머지 일부 드로잉과 나무부조작품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의 관계를 표현하고 마무리할 수 있었다. 먼저 평소에 함께하는 가족과 선생님, 친구들을 생각하며 표현했는데 저마다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버릇과 행동 직업 등 특징적인 모습을 그려 내었다. 예를 들면 핸드폰을 항상 손에 쥐고 있는 모습과 팔짱을 끼고 서있는 모습, 작업에 집중하는 모습, 뜨개질을 하는 모습 등을 볼 수 있다. 부조작품 【작품1】 중에는 사회와 가정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와 질서 가운데 서로의 연관성으로 인해 형성되는 모습을 사람들이 모여 이뤄낸 직조된 털실에 비유했는데 이것은 그런 형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 형성되는 따뜻한 정(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예 【작품4】 를 들면 함께 행복을 추구하며 경쟁자들 간에 서로에게 도전장을 주고, 때론 어설피지만 열심을 다하여 목표를 향해 비상하길 원하는 모습들을 밝고 건강한 이야기로 그려내어 관계의 소중함을 되새기고자한 것이다. 이렇듯 본인은 관계의 의미와 소중함을 기억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여 외로움을 극복한다는 것과 협동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삶이 좀 더 풍성해진다는 메시지를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 2. 작품 표현방법

먼저 작업에 임하기전 본인이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 최대한의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친숙한 재료와 표현 기법을 찾아보았고, 그 결과 부조형식의 나무 조각과 드로잉을 선택하게 되었다. 정지되어 있어 함축적인 의미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조각의 간결성과 화면 안에서 자유자재로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드로잉의 특징들을 접목하여 이미지를 담았다. 다소 감각적으로 시각을 자극하는 화려함과 가시적인 표현이 서정적이면서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이미지가 되었고, 부조로 표현한 나무 조각이 베이스가 되어 나무판이나 종이위에 드로잉을 조합함으로써 조형적이고 동화와 같이 풍부한 상상력으로 다양한 이야기와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표현의 장을 펼쳐 소통하고자 했다.

### 1) 나무재료와 부조표현

본인에게 있어 나무라는 재료는 개인적인 철학과 소망을 내포하고 있다.

나무는 생명의 상징이고, 성장의 과정을 상징한다. 또한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 자체가 조형미를 갖추고 있어 좋은 소재가 된다.

나무의 나이테는 자연의 안에서 철에 따라 흐르듯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새겨진 나무의 삶의 흔적이다. 이것은 애써 살아가는 본인의 삶 가운데 시간의 흐름 가운데 순리를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을 주었고, 본 주제의 표현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조각의 재료로 사용하게 됐다.

최근 현대미술에서는 나무를 이용하여 깎고 칠하고 붙이는 등 각종 인위적인 흔적을 가하여 입체적 재질로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독특한 숨결과 무

니, 표면 효과 등을 가변적으로 이용하고 있다.<sup>3)</sup>

본인은 이러한 나무의 특징을 살려 나무판 위에 일상과 사람들을 소재로 드로잉을 했고 삶 가운데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천 조각 【작품2】 과 자연의 꽃 【작품3】 , 미적인 장식품인 도자기 【작품4】 를 부조의 형식으로 조각하여 전체적인 이야기의 배경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소 과장된 투시와 자연스러운 볼륨과 양감은 나무의 결과 색을 돋보이게 했고 자연스럽게 작품의 이미지에 맞게 따뜻함을 더했다.

그리고 본 작품에서 이야기의 배경이 되었던 나무부조의 연장선으로 종이를 재료로 사용하여 독립적인 부조형식의 작품으로 완성하여 표현하였다.

종이의 주된 원료는 목재 펄프이며 이것은 나무에서 파생된 것으로 재료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생각하여 사용하게 된 것이다. 또한 종이는 무궁무진한 표현력을 갖고 있는 재료이고 동시에 우리가 일상에서 제일 손쉽게 접하고 함께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작업의 표현방법으로는 하나의 드로잉에서 출발해서 또 다른 하나의 드로잉과 결합하여 부분적으로 질서를 잡아가며 구조가 형성되어지고 하나의 독립적인 형태의 컵 【작품5】 과 그릇 【작품6】 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일상 속에서 컵과 그릇은 우리가 자주 접하고 사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은 이런 습관적인 시선과 생각에서 벗어나 다시 사물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형성된 소소한 이야기와 생각들을 드로잉으로 표현한 것이다. 본인은 그릇 【작품6】 을 일을 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밥그릇’이란 비유로써 시장을 생각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곳의 상인과 손님의 이해관계와

---

<sup>3)</sup> 최병식, 『미술의 이해』, 숙명여자 대학교 출판부, p.76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삶의 터전을 떠올리며 느낀 것을 드로잉으로 풀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드로잉 된 것을 결합하여 전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하나의 사물 【작품6】이 간결하게 정리된 부조로 마무리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시도는 작은 이야기가 모여 완성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 지는 것과 소소한 일상이 모여 삶의 풍경과 관계가 형성된다는 작품의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연관 되어져 표현 된 것을 볼 수 있다.

## 2) 동화적인 드로잉의 특징

기본적으로 드로잉은 조형적 묘사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술의 기본구조와 요소들을 이해하려 할 때에는 우선 드로잉을 접해야 하는 것이며, 연필이나 목탄, 펜 등의 여러 매체로부터 대상이나 이미지에 대한 가장 함축된 조형을 추구하게 된다. 드로잉의 의미는 이와 같이 미술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형상화이고 모든 표현수단의 시작점을 이루는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크로키(Croquis)나 에스키스(Esquisse), 스케치(Sketch)등의 기본적 요소들을 크게 포함하는 것 뿐 아니라 이미 회화의 영역 그 자체로 인식되어질 정도로 전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입체에 있어서도 여러 유형의 드로잉이 시도되고 있다.<sup>4)</sup>

본인은 이러한 드로잉에 깊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한계가 없이 일상의 풍경과 이야기들을 기록하여 전달하는 등 활발한 표현을 할 수 있었다. 먼저 작품에서 표현된 드로잉을 살펴보면 본인의

---

<sup>4)</sup> 최병식, 『미술의 이해』, 숙명여자 대학교 출판부, p.176

일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작업이기에 본인의 캐릭터<sup>5)</sup>를 창조하여 작품들의 이야기를 표현했는데 이것은 동화와 같이 밝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진행되고 마무리 됐다고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동화란 어린이를 위하여 동심을 바탕으로 지은 이야기로서 아동문학의 한 부문이다. 옛날이야기란 신화, 전설, 민화 따위에서 아이들에게 알맞도록 다시 꾸민 것으로 너무 잔인하거나 남녀 간의 심각한 애정과 갈등을 다룬 대목을 부드럽게 다듬고 우애나 우정으로 그려낸 것이다. 개개의 인물 조형과 디테일의 진실보다는 소박하게 요약된 미적 표현 가운데서 인간의 일반적이고 보편적 진실을 보다 중요시하는 것으로 시에 가까운 산문 문학이라고 정의하며, 현대 동화에서는 현실적인 이야기와 공상적인 이야기와 결합된 것이 많고, 환상적이고 초자연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을 동화라 규정한다. 본인의 작품에서도 이와 같은 동화적인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전개와 표현방법을 드로잉의 특징과 전체적인 작품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드로잉의 특징을 살펴보면 간단한 선묘와 채색이 가미되어 단조롭고 장식적인 느낌으로 표현했고 본인의 인물과 형태를 단순화한 캐릭터적인 요소를 뽑아 드로잉 했다. 본인의 성격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조용하고 평범한 인물로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심각하게 고뇌하고 때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며 결단하고 행동하여 표출하는 성격을 나타냈다. 그 외에 작품에서 보이는 드로잉 속의 많은 인물들과 모든 이미지의 특징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형태의 자연스러운 왜곡, 기호적인 특징과

---

<sup>5)</sup> 캐릭터(character) 소설이나 연극 따위에 등장하는 인물. 또는 작품 내용에 의하여 독특한 개성과 이미지가 부여된 존재. '개성'으로 순화.

성격을 뽑아 초현실적이고 단순화하였다. 이로써 이야기를 자유롭게 전개하고 한편의 동화 속 주인공들과 같이 표현하여 관람자에게 즐거움과 동시에 메시지를 주고자 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작품내용을 살펴보면 본인의 일상 가운데 함께하는 사물과 자연,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표현된 것을 알 수 있다. 각각의 개성을 표현한 가족과 친구 등 주변의 인물들과 일상의 단편들【작품7】,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과장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공동체의 모습【작품1】, 경쟁의 구도를 그리기도 하며 함께 목표를 향해 나가는 개개인의 개성적인 모습【작품2】 등을 나무판과 종이위에 드로잉 하였다. 그리고 천 조각【작품2】, 꽃【작품3】, 청자【작품4】와 같이 나무를 부조형식으로 조형화 한 배경위에 설치하고 별, 꽃잎, 리본, 나비, 나뭇잎, 구름 등의 모양을 첨부하여 작품의 이미지를 더욱 풍성하고, 이야기를 더욱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표현했다. 이런 모양들의 첨부는 극적인 분위기연출의 효과를 내어 관람자에게 구체적인 이야기전달과 동시에 친숙함과 시각적인 즐거움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또한 드로잉에 채색을 사용할 때 작품 안의 분위기와 이야기의 중점이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연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고 종이의 느낌과 나무의 결이 표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간결하게 절제하여 사용했다.

이렇게 작품을 표현하면서 일상적인 것을 또 다른 시각으로 새롭게 환기시켜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 이웃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들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깊이 재확인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이리하여 일상 가운데 소소하고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자연과 사람, 만물에 이르기까지 함께하는 것을 되짚어보며 혼자라는 외로움의 시각이 아닌 관계의 소중한 의미를 깨닫는 시각으로 보다 밝고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자 의도한 것이다.

또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표현력에 있어서도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묘사하기 보단 본인을 비롯한 저마다의 특징적인 캐릭터를 뽑아 표현했고 독특하지만 이질적이지 않을 만큼의 상상력과 왜곡을 빌려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서 보는 이로 하여금 다소 동화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상황을 보다 쉽고 객관화시켜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기능을 더하게 되었다.

### Ⅲ. 작품분석



【작품 1】 Untitled, 860×860mm, 나무판 종이 드로잉, 2009

## 【작품 1】

제작연도 : 2009

제 목 : Untitled

재 료 : 나무판, 종이, 드로잉

크 기 : 860×860mm

제작기법 : 나무판위에 드로잉

제작과정 :

- 1) 흙으로 털실로 짠 직물을 제작 후 석고를 뜬다.
- 2) 종이죽을 석고 틀 안에 넣어 건조 시킨 뒤 떼어낸다.
- 3) 나무판위에 구상한 드로잉을 한 후 틀에 떼어 낸 종지와 접합 시킨다.
- 4) 나무판에 뜨개바늘과 실 뭉치를 재단한 후 전체적인 구도를 잡고 화면에 설치한다.

작품설명 :

본 작품은 사회와 가정 속에서 형성되는 사람들의 관계를 비유한 것과 동시에 일상의 사물 안에서 세워지는 또 하나의 질서와 관계들을 비추보고자 했으며, 이것을 통해 관계의 의미와 소중함을 생각하고자 하였다.

한 올씩 직조되어져 만들어지는 뜨개질의 형상에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는 모습을 이입시켜 비유했다. 뜨개질은 본인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물건으로써 영감을 받은 것인데 털실로 짜여진 뜨개질의 직조 모양을 사람들이 서로에게 의지하여 매달려 있는 모습으로 비유했고, 이것은 한 사람이라도 손을 놓거나 떨어지게 되면 구멍이 나고 형태가 망가질 것이란 암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견뎌내 주어야 하는

인내와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의 연관성으로 인해 형성되는 정(情)이 털실의 온기를 더하여 보여준다. 이처럼 ‘나’와 ‘너’ 그리고 ‘우리 사이’에 대한 이해와 신뢰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실제적인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소중한 열매인 것이다.



【작품 2】 Untitled, 650×300×100mm, 나무 드로잉, 2009

## 【작품 2】

제작연도 : 2009

제 목 : Untitled

재 료 : 나무, 드로잉, 철사

크 기 : 650×300×100mm

제작기법 : 나무조각 위에 드로잉 설치

제작과정 :

- 1) 나무를 주름진 천 모양으로 조각한다.
- 2) 철사로 두 줄의 실과 바늘을 표현한다.
- 3) 얇은 나무 합판 위에 드로잉을 하고 재단 한다.
- 4) 나무 조각 위에 재단 된 드로잉을 설치한다.

작품설명 :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함께 필요로 하는 천의 주름을 삶에서 실현 되는 인생의 여정에 비유해 보았다. 바늘에 꿰인 두 줄의 실이 천을 통과하여 힘있게 굴곡과 같은 주름을 만들어 놓았다.

우리 삶의 여정에는 평평한 길이 있는가 하면 심한 굴곡이 있는 길을 만날 때도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 길을 각자의 방법과 모습으로 감당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교통수단의 방법에 비유하여 드로잉으로 표현 했는데 비행기, 우주선, 요트 등 가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한 어떤 특별한 수단과 대중적인 수단으로써 자동차, 기차, 버스 등 각자의 환경과 삶의 형편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저마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긍정적인 시각

으로 담은 것이다. 인생의 길은 혼자 걸어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고 서로를 바라보며 위로 받고 격려하며 함께 나아갈 때 아름답다는 생각을 갖고 표현했다.



【작품 3】 Untitled, 1360×880mm, 나무 드로잉, 2009

### 【작품 3】

제작연도 : 2009

제 목 : Untitled

재 료 : 나무, 드로잉

크 기 : 1360×880mm

제작기법 : 나무조각 위에 드로잉 설치

제작과정 :

- 1) 나무를 꽃의 모양으로 원근감을 살려 조각한다.
- 2) 얇은 나무 합판 위에 드로잉을 하고 재단 한다.
- 3) 나무 조각 위에 재단 된 드로잉을 설치한다.

작품설명 :

본 작품은 바라봐 주는 이로 인해 행복해 하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인간관계 가운데 바라봐 주는 이가 있고,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것 같다. 또한 아름다운 것도 바라봐 주는 이가 있을 때 그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작품의 꽃잎은 나무를 조각하여 부조로 표현했고 중심 원안에 자신을 바라봐 주는 누군가에게 아름다워 보이고 싶은 욕구로 인해 치장을 하고 가꾸는 모습들은 드로잉으로 표현했다. 또 주변에 작은 꽃들과 별, 리본의 드로잉을 넣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와 관심과 사랑을 받음으로써 행복해 하는 마음을 시각적으로 연출될 수 있도록 표현했다.

이렇게 사람은 사랑과 인정을 받을 때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느껴지고 인생이 의미를 느껴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본인은 이와 같이 누군가 바라봐 주고, 사랑받고, 사랑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을 다시 한 번 바라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럼으로써 가꾸고 보여지길 원하는 다시 피어나는 꽃과 같이 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 【작품 4】

제작연도 : 2009

제 목 : Untitled

재 료 : 나무, 드로잉

크 기 : 580×750mm

제작기법 : 나무조각 위에 드로잉 설치

제작과정 :

- 1) 나무를 도자기 모양으로 조각한다.
- 2) 얇은 나무 합판 위에 드로잉을 하고 재단 한다.
- 3) 나무 조각 위에 재단 된 드로잉을 설치한다.

작품설명 :

우리는 모두가 행복과 만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원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작품 중 도자기의 의미는 우리나라의 고려청자의 모양을 본 뜬 것으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움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호로써 표현된 고려청자의 예를 들어 예술작품을 만드는 작가로써 최선의 것을 만들어 좋은 작가가 되기를 목표로 삼고 바람을 담아 청자모양의 도자기를 나무를 재료로 조각하여 부조로 표현하고 이런 공통된 목표를 향해 준비하는 작가들의 모습을 드로잉하고 설치해서 표현했다. 드로잉으로 표현된 이미지를 보면 어떤 이는 정상을 향해 날개를 만들고, 우주선과 종이비행기를 만들고 때론 방법에 실패하기도 하지만 목표를 향해 높이 비상하길 끝없이 노력하고 원한다.

이와 같이 배열 된 저마다의 모습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닌 여러 동료들과 경쟁자들을 통해 서로 같지만 다른 모습 속에서 도전받으며 함께 나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그려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에는 서로를 통해 저마다의 특징을 발견하고 인정하며 외롭지 않게 서로를 격려하며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작품 5】 Untitled, 540×740mm, 종이 드로잉, 2009

## 【작품 5】

제작연도 : 2009

제 목 : Untitled

재 료 : 종이, 드로잉

크 기 : 540×740mm

제작기법 : 드로잉으로 컵의 형상을 부조화 시킴

제작과정 :

- 1) 흙으로 컵의 모양을 제작 후 석고를 뜬다.
- 2) 종이에 컵과 차(茶)에 관련 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연필로 그린다.
- 3) 석고를 뜬 가다 위에 그림들을 나열하고 접착 후 틀에서 떼어 낸다.
- 4) 나무판에 연기의 형상을 재단한 후 전체적인 구도를 잡고 화면에 설치한다.

작품설명 :

본 작품은 본인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종이컵을 형상화한 부조작품이다. 재료 또한 종이를 사용하였는데 종이에 드로잉을 하여 각각의 이미지들을 이어 붙여 구성하였다. 드로잉의 내용은 차(茶)로 인해 형성되는 이야기들로 구성 되었다. 차를 마시면서 떠오르는 단상, 만남, 밤을 새우고 이른 아침에 마시는 커피 등 본인이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때론 차 한잔의 여유가 바쁜 일상과 혼자만의 세계와 외로움에서 잠시 숨표를 찍게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나와 타인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쉽게 빠지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본 작업은 우리가 차를 마시고 함께 나눔으로써 그 가운데 자신과의 소통, 타인과의 소통이 생겨나는 모습과 이야기를 표현한 것이다.



【작품 6】 Untitled, 350×280mm, 종이 드로잉, 2009

## 【작품 6】

제작연도 : 2009

제 목 : Untitled

재 료 : 종이, 드로잉

크 기 : 350×280mm

제작기법 : 드로잉으로 사발의 형상을 부조화 시킴

제작과정 :

- 1) 흙으로 사발의 모양을 제작 후 석고를 뜬다.
- 2) 종이에 직업과 삶에 관련 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연필로 그린다.
- 3) 석고를 뜬 가다 위에 그림들을 나열하고 접착 후 틀에서 떼어 낸다.
- 4) 나무판에 사발의 안쪽 면을 재단한 후 전체적인 구도를 잡고 화면에 설치한다.

작품설명 :

본 작품은 사발의 형태를 표현한 것인데, 종이위에 드로잉 하고 이어서 붙여 구성한 것을 부조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그릇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표현 하는데, 많이 들어 본 비유 중에는 사람의 됴됨이를 표현할 때, 또는 일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것에 밥그릇을 비유로 들게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드로잉의 배경은 동대문 원단시장의 풍경이다. 예전에 본인이 이곳을 자주 들리면서 보고 느낀 것을 먼저 드로잉으로 풀어 보았다. 시장이란 곳은 몸

과 마음이 분주하고 그와 함께 많은 사건이 오가는 삶의 터전이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상인과 손님이란 이해관계로 맺어진다. 비록 각자 다른 역할로써 이해관계로 만나게 되지만, 함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다. 이러한 것에는 인내와 희생,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감이 수반이 되고 이것이 원활할 때 참다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세상은 함께 각자의 몫을 해내며 살아가는 것이고, 참다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란 생각을 했고, 드로잉을 서로 엮어서 사발형태로 만들어 이러한 삶의 풍경과 의미를 새겨 본 것이다.



【작품 7】 Untitled, 180×250mm, 나무판 위에 드로잉, 2009

## 【작품 7】

제작연도 : 2009

제 목 : Untitled

재 료 : 나무판, 드로잉

크 기 : 180×250mm

제작기법 : 드로잉 ×(70개)

제작과정 :

- 1) 작품 구상 후 얇은 나무판 위에 스케치 한다.
- 2) 컷터 칼로 그린 것을 재단한다.
- 3) 수채화 물감으로 채색하고, 색연필로 명암을 열게 넣는다.
- 4) 정착액을 뿌린다.

작품설명 :

본 드로잉은 일상의 풍경과 본인, 가족, 선생님, 친구들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재로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드로잉 한 것이다. 특히 사람을 표현할 때 저마다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 자주 소지하고 다니는 소지품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버릇 등 특징적인 부분을 부각 시켜 표현했고, 본인을 표현함에 있어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욕망과 외로움, 두려움 등의 내면을 표현했다. 또한 일상에서 함께 하는 물건들과 풍경에 본인의 심상을 비추어 표현하기도 했다. 이러한 소재들을 바탕으로 드로잉을 하면서 일상의 풍경과 사람들과의 관계와 의미에 대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고, 소소한 일상을 여유롭게 돌아보고 표현하여 함께 나누는 것 자체에 감사할 수 있었던 작업의 시간들이었다.

#### IV. 결 론

예술가는 사회와 환경, 역사, 그리고 자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 미처 깨닫지 못한 가치를 찾아 작업을 매개로 표현하고 의미를 되새기며 소통하는 역할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때론 사회에서 분리되어져 독립 적으로 자신의 입지와 생각을 표현하는 과제와 부담을 안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 느낀다.

예전에 비해 학문과 예술에서 일상과 관계에 대한 소재가 관심의 대상이 되어 표현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모순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회의로 인해 외로움과 공허감을 느끼는 사회적 분위 기에서 출발했다 볼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은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봄으로써 모든 관계와 만남을 진지하게 고찰하여 긍정적인 시선을 제시하고자 작품을 통해 본인의 독백으로 시작하여 소소한 일상을 그리고 그 가운데 미처 깨닫지 못했던 서로 간의 사랑과 보호, 격려하고 경쟁하기도 하는 함께하고 있는 이야기를 표현하게 되었다.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한 드로잉과 조각을 통해 일상의 풍경과 관계들을 작품화한 것은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자들에게 자신들의 일상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 돌이켜 보고 빚대어 생각하며 공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작품에 나타나는 조각위에 구체적으로 표현된 드로잉의 이미지는 심오함을 강조한 상황이라기 보단 본인과 사람들의 성격을 형상화한 캐릭터 이미지를 통해 작품 속에서 이야기를 전달하였고 이러한 것은 동화적인 따뜻한 감성을 통해 보는 이들에게 편안한 시선과 공감대 내지는 새로운 탐구로 다가갈 수

있었다. 그리고 본인에게는 소소한 일상의 단편과 주위에 함께하는 이들을 표현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재해석함으로써 보이지 않고 항시 알 수 없었던 서로에 대한 신뢰와 정(情),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고 음미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다양한 매체와 이미지들이 창출되어지면서 표현방법이 무궁무진해진 예술의 중요한 역할과 입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요즘이다.

지금까지 논한 작품의 표현과 같이 본인은 전체 줄거리를 읽을 수 있는 부조와 캐릭터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드로잉을 창조하여 대중에게 친절하게 다가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표현과 매체를 연구하여 진행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따뜻한 감성과 위로의 메시지를 현시대에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 힘쓰고 이바지하는 작가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논고를 마친다.

## 참 고 문 헌

최병식, 『미술의 이해』, 숙명여자 대학교 출판부, 1993

권석만, 『인간관계 심리학』, 학지사, 1997

정순복, 『일상의 미학』, 예전사, 2006

로잘린느 크라우스, 『현대조각의 흐름』, 예경, 윤난지 역, 1998

김현화, 『경계없는 현대미술』, 숙명여자 대학교 출판부, 2001

서대석,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 휴머니스트, 2008

## ABSTRACT

**A Study on Drawing and Relief which expressed Routine  
- Centering around Fairy Tale-like Expression of My Work -**

Joo, Ah Reum

Departmen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Expression is being made, as material for routine and relation becomes the subject of interest in learning and art in comparison with former times. It can be seen that this started from social atmosphere to feel loneliness and sense of emptiness due to discrepancy and basic criticism and skepticism for it in rapidly changing society.

So, I tried to say insignificant routine of everyone, love and protection among one another which failed to be realized in advance, and all the relation and meeting to share which encourage and compete through work by coming nearer with affirmative eyes, studying them seriously, through starting from

my monologue by looking back upon modern's own life.

It could be seen that making daily landscape and relations into work through drawing and sculpture manufactured on the basis of my experience is that spectators to appreciate work review, insinuate, and sympathize with sharing with their own routine. And, image of drawing expressed concretely on sculpture to show in work transmitted story in work through character-like-image which made me and people's character into form. And, this could go nearer to seers with comfortable eyes, sympathy zone or new research by transmitting fairy tale-like warm sensitivity. And, it was time that I could realize and appreciate trust and love for each other and love importance which are not seen and which could not be known at all times by giving and reinterpreting meaning through expressing fragment of insignificant routine and people to share around me.

Nowadays, I try to think important role of art that expression methods became infinite and fixing my aim in life again, while diverse media and images are created.

I will progress by studying expression and media in the future also, so that I may transmit message through going nearer to masses kindly and may appeal to them by creating drawing which is including story which added relief to be able to real whole outline and character-like-element.

And, I complete this study, hoping that I will be an artist to make efforts and contribute for healthy society to have right sense of value by presenting warm sensitivity and comfort message to present period.